

'다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전북'

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개최 4개 추진전략 평생학습 시행계획 536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5일 도 종합상황실에서 박주용 전북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및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5년 단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기반으로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으로, 당해연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의 평생교육 기본방향과 도, 교육청 및 14개 시·군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담고 있다.

2024년도 시행계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이라는 비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균형있는 평생학습사업 추진'은 지역 내 고른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의 학습권 확대하고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사

업(45억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사업(7억3,000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중심의 평생학습 실천'은 도·농간 평생교육 환경격차를 개선하고 근거리 학습권 보장,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모두배움터 운영 및 조성지원(38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자아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 역량 강화'로 시민참여를 통해 성숙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전북시민대학 운영(6억 5천만원)을 추진한다.

끝으로 '새로운 학습환경 적응력 제고'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자 정책개발, 평생교육 감사 역량강화

과정, e-스튜디오 운영 등으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4천만원),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5천만원)을 추진한다.

4대 추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학습 소외계층 등 지역 간, 계층 간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관 등 거점 교육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마을회관 등 일상 생활권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를 학습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민수요를 적극 반영해 도민 중심의 교육서비스 질을 높인다.

더불어, 도내 대학과 컨소시엄으로 전북시민대학을 본격 운영 함으로써, 광역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변화되는 학습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학습자 환경 디지털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단절을 방지하고 온라인 학습 역량도 제고해 나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도, 교육청, 기관, 시군과 함께 도민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으로 창의·협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총 317개 사업에 5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이번 평생교육 관련기관 대표와 전문가 등 위원들이 참석해, 올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치를 강화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5일 도 종합상황실에서 박주용 전북특별자치도 부교육감 및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를 열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 적극 홍보

도,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포함됐지만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3,273가구를 발굴해 의료급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며, 동시에 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신청을 주저했던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 대상자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청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도 최대 3억6,4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신규로 책정될 예정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로 수급자 종별, 입원·외래 여부, 병원 및 약국 종별에 따라 구분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박장석 전북자치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대상자 발굴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으로 인해 주저하셨던 도민분께서도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진안군의료원서 공공클래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오경재)'과 함께 지난 15일 진안군의료원에서 기관 관리자 및 실무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1차 찾아가는 공감(共感)클래스'를 개최했다.

공감클래스는 작년부터 보건의료기관 인력의 보건의료 이해 증진과 책무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무성 강화'라는 주제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의 강의가 있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안군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자 모집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의 신규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에서 같은 금액인 10만원을 적립, 2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본인 저축액 포함 500만원(원금 4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3월 18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근로 청년이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18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두배적금 플랫폼(www.double.ji2030.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0-204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습관 형성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기초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을 통해 청년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 추진

1640ha 148억 들여 401만 그루심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 기반 구축, 탄소흡수원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148억원을 투입해 1,640ha에 총 401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 발생 원인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 주변에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주요 관광지나 도로변 등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큰나무 공익조림 40ha를 실시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나 산불·병해충·태풍·가뭄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 190ha, 지역 산림의 특성을 부각하여 대표적인 숲으로 육성하는 지역특화조림도 116ha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목재 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1,194ha △산림에서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두릅·잣나무 등 특용자원 조림 50ha △대형산불 확산 방지 및 산불 발생 시 사할·주택 등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화수림대를 5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오늘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모든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거래상인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검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산을 차단하고 잔존 바이러스의 제거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총 761개소로 올해 2월 말 기준 도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농장 673개소와 가금판매소 58개소, 계류장

15개소, 거래상인 차량 15대이며, 올해 고위험지역(김제, 정읍, 고창, 부안)내 농장을 제일 먼저 검사하고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 순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료채취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주관해 해당 시·군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함께 실시하고 유전자 검사(PCR)를 통한 정밀 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